

제33호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박정일 과장



가까이에 있는 안전의 소중함을 바로 알고 잠재위험 ZERO에 힘쓸터

시 리도록 아름다운 하늘과 나무가 끊임없이 줄이어 달리고 저 멀리 펼쳐진 바다는 그 포용력만으로도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과 넉넉함으로 다가온다.


바다의 포용력을 닮은 광활한 대지 위에서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약 7.4% 이상을 공급하는 핵심 요충지, 한국서부발전(주)태안발전본부에서 그곳의 안전을 책임지는 박정일 과장을 만나 그만의 안전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잠재위험 ZERO’ 위해 매진

ISO 9001 · 14001, KOSHA 18001, OHSAS 18001,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초일류기업 인증. 이 모두는 한국서부발전(주)태안발전본부의 발자취이다. 이러한 태안발전본부의 안전을 배가시키기 위해 박정일 과장은 ‘잠재위험 ZERO’ 를 앞세운다. 지난 10월말 무재해 10배수를 달성하여 ‘안전사고 ZERO’ 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고, 그보다 한단계 앞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모두 색출하여 제거함으로써 작업도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다.

Fail Safe에 따른 안전설비는 물론 Fool Proof System에 입각하여 사소한 것이라도 경고 표시판이나 야광테일 등으로 위험구역을 확실히 표시하고, 그래도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등에 대비하여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한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실시하는 간부들의 T/M(Mobile Mm)회의, 실시간으로 작업의 상황과 위험상태를 파악하는 푸른 신호등 제도 또한 같은 맥락이다.

업무특성상 주말이나 야간에도 근무해야 하지만 태안발전본부 식구 모두, 나아가 이곳에서 공급하는 전력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으로 업무에 임한다는 그는 안전과 함께 사내 풍물패인 「태풍」에서 장구를 맡아,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공연을 하는가 하면 사회단체를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이웃사랑의 정을 몸소 실천한다.

2004년 남은 2개월을 태안발전본부가 안전경영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듯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주위의 동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이룩하자며 넓은 바다처럼 시원스런 미소를 지으며 현장으로 향한다. 

〈성호연 기자〉